

붙임_Sync 참여 후기

Sync 는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 기획자들이 그룹 워크샵, 개인 코칭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.

2012 년 런던올림픽 준비 기간 중 사라 픽슬과 조 버런트, 두 명의 장애 예술가이자 기획자인 두 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,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에서 백 명이 넘는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 기획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.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많은 성과를 얻고, 각자의 커리어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

현 사회는 장애인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들의 잠재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Sync 에서는 이러한 '유리천장'을 부수고 그들의 가능성을 위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

지난 8 년간 100 명의 장애 예술가 및 장애 예술 기획자들이 1, 2 일 워크샵 또는 5 일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 변화를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. 아래는 Sync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소감입니다.

2009-2012 영국 프로그램 참가자

- Rachel Gadsden 레이첼 가스덴

중동 및 팔레스타인 지역, 국제 시각예술가 대변인

"Sync 는 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"



- **Jenny Sealey (MBE) 제니 실리**

런던 그라이아이 극단 예술감독, 및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예술감독
"Sync 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고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"

- **Jez Colborne 제즈 콜본**

2012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커미션 공연 'Irresistible' 의 연주자 겸 감독
"Sync Coaching 은 제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저의 학습장애는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고 감독하는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있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"

- **Bobby Baker 바비 베이커**

Daily Life 예술감독
"Sync 는 그동안 차마 알고있지 못한 나만의 장점과 능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"

- **Jon Pratty 존 프레티**

2014-16 브라이톤 디지털 페스티벌 대표 및 프로듀서
"Sync 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, 이를 통해 넘어서야만 했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"

2013-2014 호주 프로그램 참가자

2013-4년에는 호주에서는 호주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24 명의 장애예술가와 장애예술 기획자들이 참가하였다. 참가자들 대부분은 현재 직접 기관을 운영하거나 국제 공연을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.

- **Kate Hood 케이트 후드**

여배우이자 스스로 설립한 회사 Raspberry Ripple 의 현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
"Sync 는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새롭게 구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"

- **Morwenna B Collett 모웨나 비 콜렛**

호주예술위원회 전략팀 시니어
"Sync 는 저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을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"